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반도 평화기원”

종교계 신년 메시지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종교지도자들이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7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께서 갈라진 북녘의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 고 말했다.

또 “진정한 행복은 일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평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며 “평화는 하느님의 질서가 구현되고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건설되고 사랑과 연대로 완성되며 자유가 보장할 때만 실현된다.” 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성희 목사도 26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8년을 돌아보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노라 고백하게 된다.” 고 말했다.

이어 “교회협이 이번 회기 주제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를 정한 것은 특히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가 있다.” 며 “한국교회는 올해에도 더욱 굳건히 평화의 길을 계속 걸어야겠다.” 고 주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사에서 “돼지는 근면과 성실, 복과 재물을 지키는 상징” 이라면서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된 약자들을 지키는 친구가 되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고 말했다. 이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굳건한 평화체제를 이뤄내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기원했다.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외롭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모님은 박복하기 이룰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간음죄였지요. 성모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켜주셨고, 아들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마리아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예수도 삼십에 집을 떠나 방랑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율법학자들이 ‘저 놈 죽어야 된다!’ 고 하니 늘 노심초사하는 성모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나중에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여인을 어찌 복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 성모칠고가 뭐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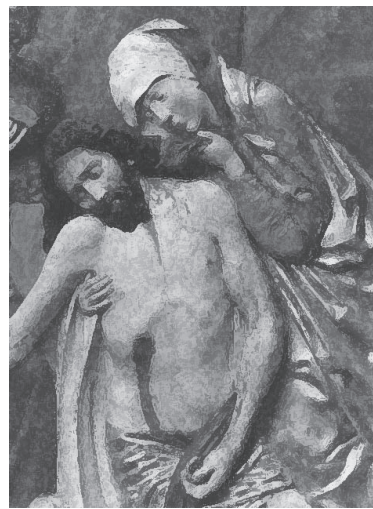
첫째, 시메온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신 것

둘째, 헤로데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가신 것

셋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매신 것

넷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신 것

다섯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신



음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엄마의 고통

여섯째, 죽은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통에 젖으신 것

일곱째, 아들의 장례를 치른 것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고통덩어리로 살았던 성모님께 무슨 복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 이 모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고 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의 그런 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2019년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조그마한 인간적인 장애와 조건에도 자주 넘어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작은 시련이 와도 하느님 멀리하고 무슨 핑계만 생기면 신앙을 가차 없이 내던지기 일쑤입니다.

주일날 똑같은 강론을 들어도 나가서 살아가는 열매가 다릅니다. 똑같은 성서를 보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체험을 하여도 어떤 이들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삼왕처럼 만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한 적은 있는가!

두 번째, 세 왕은 온갖 고생 끝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올 일 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남에게 떠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올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은 백날 해봐야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걱정을 하면 어둠이 들어오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즉 영세를 하고 미사 때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별이요,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 년 동안 십자가의 어려움, 때로는 병의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별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합시다.

-김웅열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한국식 이발/염색 그레이스 이발관 Grace Barber Shop

- 이발 Haircut \$15
- 염색 Dyeing \$30
- 이발 & 염색 Haircut & Dyeing \$35
- 이발 & 샴푸 Haircut & Shampoo \$17
- 면도 Shave \$20

Tel. 626.810.2261
18381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

